

개장 후 첫 주말 맞은 전남 해수욕장 '썰렁'

700명 정원에 55여명만 찾아
광주전남 코로나19 확산 영향
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 철저



전남지역 일부 해수욕장이 개장한 뒤 첫 주말을 맞은 11일 전남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.

지난 10일 영광 가마미, 장흥 수문, 진도
가계 등 전남지역 해수욕장 3곳이 개장했
다. 이후 5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
장된다.

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1일 영광 가
마미해수욕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
염증(코로나19) 여파 탓인지 썰렁했다.

가마미해수욕장은 출입구에서 명부 작
성과 발열 체크를 해야만 해수욕장에 들어
갈 수 있게끔 2곳의 출입구를 제외한 다른
길목은 모두 철장으로 막아놨다.

피서객들은 발열 체크를 한 뒤 명부에
이름과 휴대전화 번호, 체온을 작성하고
나서야 해수욕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.

전남도는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
해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
다.

해양수산부 '바다여행' 또는 도·시·군
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을 원하는 해수욕장
과 날짜 등을 미리 예약해야 한다.

예약제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
이날 가마미해수욕장을 찾은 대부분의 피
서객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방문했다.

이에 출입구 안내원은 명부 작성 뒤 1팀
중 대표자 1명의 명단을 따로 작성했다.
바다여행 등에 명부를 등록하기 위해서였
다.

가마미는 700명까지 출입을 제한하고

있으나 이날 낮 12시 기준 해수욕장을 찾
은 피서객은 11개 팀 55여명 뿐이었다.

말 그대로 썰렁했다. 해수욕장에 마련된
평상과 데크 등은 골라서 자리를 잡을 수
있을 정도로 텅텅 비어 있었고, 드넓은 해
수욕장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인원을 헤
아릴 수 없었다.

최근 광주에서 폭발적으로 집단감염이

확산하고 동일생활권인 전남까지 퍼지면
서 시·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돼 휴가를
즐기는 인원도 급격히 줄었다.

가마미해수욕장 관계자는 "코로나19 여
파로 피서객이 적은 것 같다"며 "평상과
데크가 딱 차면 파라솔을 설치할 계획이나
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"고 말했다.

영광=서희연 기자

광주 코로나 확진자 43%
'무증상'...감염 우려 커져
"역학조사 범위 규정보다 확대"

최근 광주에서 잇따르고 있는 신종
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
진자 중 절반 가까이 무증상으로 나
타나면서 감염우려가 커지고 있다.

광주시는 꼬리를 무는 감염경로 차단
을 위해 확진자 대상 역학조사 범위를
규정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.

(관련기사 9면)

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
달 27일부터 발생한 확진자 123명 중
53명이 무증상자로 확인됐다. 43.1%로
5명에 2명꼴이다.

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발현
시점 이틀 전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접
촉자를 확인한다.

하지만 무증상 환자는 증상이 없어
감염 시점 확인이 어렵다. 자발적으로
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찾지 않는다. 대
부분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
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는다.

그러다 보니 역학조사에서 조기에 접
촉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발견까지 시간
이 오래 걸린다. 그 사이 일상생활을 하
며 추가로 전파한다.

베드민턴 동호회 A클럽 회원인 76번
환자의 경우 무증상으로 광주 55번 환
자 접촉자로 확인돼 지난 1일 검체 채
취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.

55번 환자 역시 무증상으로, 금양오피
스텔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다. 지난달
30일 검사에서 양성 반응으로 나타났다.

76번 환자와 같은 A클럽 회원인 150
번 환자는 9일 검체 채취 후 10일 확진
판정을 받았다. 150번 환자도 무증상으
로 76번 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후에야
확인이 됐다.

76번 환자가 속한 A클럽과 137번 환
자가 속한 B클럽이 전남대 스포츠센터
에서 베드민턴 동호회 경기를 치른 건
지난달 30일이다.

150번 환자의 경우만 놓고 보면 베드
민턴을 친 지 10일 만에 파악된 셈이다.
이 환자가 그 사이 돌아다닌 곳은 셀 수
없을 정도로 많다. 2차, 3차 감염이 잇
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보건당국은 무증상 환자의 경우 조기에
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
하다고 보고 역학조사 기간을 대폭 확
대하기로 했다.

조인호 기자

“전남 의대, 지역 먼저 결정 후 검토”說... “정부, 공 떠넘기기” 우려

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
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“전
남의 경우 의대 신설 문제는 내부에서 지
역을 결정한 뒤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”
는 내용 등이 흘러나오면서 “정부가 공을
전남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”는 우려의 목
소리가 나오고 있다.

“전남도 내에 우선 유치”...도 추진 방향과 배치

공동협력 협약 불구, 목포·순천 과열 경쟁 ‘불씨’

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
나 19)의 세계적 확산으로 의료인력 확충
등 의료시스템 강화가 부각되면서 전국 17
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
전남지역 의대 설립문제가 탄력을 받으면
서 ‘핫 이슈’로 부각되고 있다.
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 언론 등을 통해

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
10년간 총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
중이라는 ‘의료인력 확대 방안’이 보도되
는 등 균형을 지피고 있다.

또 전남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‘전남
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로
검토’하기로 했다는 등 내용이 솔솔 흘러

나오고 있다.
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자체와
도민들은 “정부 안이 사실이라면 전남도
가 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목포와
순천 지역부터 먼저 교통 정리하라는 것”
이라며 “책임을 도에 떠넘기는 것에 다름
아니다”고 우려를 표명했다.

이는 의대와 부속병원을 전남에 먼저 유
치한 후 향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
지역을 결정하겠다는 전남도의 방침과도
배치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.

‘의료인력 확대 방안’ 보도와 관련 보건
복지부는 “그간 지역별·분야별 의사인력
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
돼 왔다”면서 “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확
정된 바 없으며,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
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하여 결정될 사
안”이라고 밝혔다.

전남지역 의대 유치는 오래 전부터 서부
권인 목포와 동부권인 순천이 적극 나서면
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·서부
권 후보자들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
공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.

이런 가운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
도는 지난달 의과대학 유치 태스크포스
(TF)팀을 발족하고, 범도민 결의대회와
함께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갖는 등 적극

나서고 있다.

목포·순천 지역 간 경쟁 과열을 의식,
먼저 전남도 내에 의대를 유치한다는 데
방점을 찍고 있다.

김영록 전남 지사는 지난 5월26일 목포
시·순천시 양 시장, 양 시의회 의장, 목포
대·순천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도
한 경쟁을 지양하고 전남에 먼저 의대유치
를 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공동협력 협약
식을 가졌다.

한편,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
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는
유일한 지역이며, 전국 99개 응급의료 취
약지역에 17개 시·군이 포함돼 있다.

대표적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은 전
국 470개 중 276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
있어 1만3000여 명의 도서민이 의료 혜택
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.

정승호 기자

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

양파, 낙지, 고구마, 송어 등 자연의 보고... 황토로 무안